

肯定과 合理의 勢姿

文 哲 鎬

(韓國電力)

만나는 사람마다 바쁘다는 말과 그저 그렇다는 말을 한다. 별볼일 없는 사람만 만나느냐면 그렇지 않다고 또 그다지 바쁘지 않고도 지낼만 하고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昇進도 되고 會社가 커지기도 하고 專用車가 종용되기도 하는가 하면 事業에 必要해서라지만 「골프」도 즐기고 料亭에도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外國의 壓制 속임수에 빠앗기지 않기 위한 銳國의 時代, 解放直後와 動亂期の 混亂이 남의 말, 남이 하는 일은 一應 疑心하고 否定的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다보니 드디어는 否定과 疑心 꾸러기가 되어 아무거나 스스로 判斷하고 決定하는 것을 망서리게 되고 마침내는 남이 判定해 주기를 기다리는 依他心마저 생긴 것이나 아닌지 우리가 日帝에서 보고 들은 國際比較, 客觀性, 外國專門家の 見解등이 모두 그런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다.

우리나라 事情을 잘 알지 못하는 外國의 經濟 專門家 政治人 言論人 學者 가운데 아무게가 며칠 동안 머물고 가거나 制限된 情報과 資料를 바탕으로 뇌까린 몇 마디 말이 좋은 內容이던 크게 알려 종와라하고 짧은 內容이거나 反韓의 이면 그냥 풀이 죽은 꼴이 되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다.

바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그때마다 重要한 決定을 해야하는 우리의 生活은 情報(남의 말)를 받아 들이고 이를 判斷하고 決定하는 것은 아주 重要하나 지금 우리는 이를 배워 익히지 못한 것이 事實이다.

官廳을 비롯하여 大小團體와 會社들이 한가지 일을 處理決定하기 위하여 節次를 밝는 決裁도

그렇다. 믿을 수 없기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階層과 關聯者가 서로 따져보고 틀림없다 싶을 때 도장을 찍어 다짐을 하고 이것을 믿고 最終 決定權者가 도장을 찍어 決定한다.

最終決定權者가 直接判斷하여 直刻處理해버리면 行政節次의 規程에 違反되어 말썽이 생기기에 「이러 이리하게 處理 決定되도록 決裁를 올려라」하는 下向式이 생겨나고 도장 받는 時日만큼 그 決定이 늦어진다.

이렇게 차증스런 生活習慣과 過慾競爭에서 생기는 갖가지 不作用이 마치 合理的인 思考方式처럼 常用되고 있는 社會生活과 절름발이 式의 學習家庭의 教育方法이 制度的인 強要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肯定속에서 맴돌며 커오기를 數拾年! 이제 이러한 時點에서 또다시 커다란 變化를 갈망하는 탈출구의 문을 열고 과감하게 첫발을 내 디는가 했더니 아이러니 하게도 어설픈 슬픔들로 萬人의 가슴을 울머지리게 하는 結果로 轉換하는 事例가 허다하다.

물론 잘해보겠다고 한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 잘 해 보자고 노력했음도 사실이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반여론을 참작하여 오랜시간을 研究 檢討하였음이 분명 할텐데 메스컴에 보도되는 갖가지 不決한 事件들이 끝임이 없다.

바늘가는데 실간다는 우리 속담은 꼭필요한 要素構成을 이루어야 機能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민족백년대계의 새싹을 갈아먹고 뿌리를 좀먹어 시들어가는 形象을 대하는 視線의 안타까움도 있오련만 나하나쯤하는 그릇된 생각과 안일한 思考方式이 고질사회에 병폐라면 이는 오로지 스스로의 自覺과 覺醒이 앞서 실에 口實을 하여야 함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며 이러한 必

要件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갈망 해왔건만 늘 기생충처럼 母體에 붙어 逆效果를 자초하는 社會惡은 뿌리깊게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도 可能하면 肯定과 合理性을 크게 길러야 할 때가 되었다.

大學入試를 위한 高校生の 體能檢査와 給食 빵 中毒事件 그리고 구더기와 벌레가 나왔다는 不良食品事件들도 最近에 發生한 좋은 본보기다.

우리의 生活 아니 목숨이 달린 事件들이요, 이를 놓고 論議한 것은 구멍가게의 主人에서 財閥企業의 社長, 國民學生에서 文敎部長官, 學父兄에서 國會議員, 調理士에서 保社部長官에 이르기까지 各界各層이 公式的으로 意見을 내었고 新聞, 「레디오」, 「텔레비전」은 며칠씩 報道, 論評, 分析을 다루어 거듭했다.

結果로는 零細企業의 業者가 拘束되고, 責任을 따지겠다던 教育監이 물러나 「給食 빵」事件은 結末이 났고 體能檢査는 그런대로 學生들의 成績으로 確定되었다. 그동안에 목숨을 바친 學生들은 父母, 兄弟, 敎師, 學友들의 슬픔 속에서 세상으로 갔고 給食中斷, 現金支給, 體能檢査廢止의 論議는 별로 報道되는 일이 없었고 不良食品은 責任迴避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리되는 것이니란 투의 커다란 「사과 말씀」의 新聞廣告로 끝이 난 느낌이다.

우리에게 肯定的이고 合理的인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學校給食은 全校生(國民學校)에게 實施되어야 한다. 學生의 體力은 더욱 向上되어야 한다. 變質된 食品은 팔지 않아야 한다는 基本에 버티고 서서 責任있는 官吏나, 뜻있는 代辯者가

對處했어야 하고 報道와 論評과 分析이 되었어야 한다. 그저 누군가를 惡·否定으로 세워야만 하는 버릇, 「可」아니면 「否」의 生活習慣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學校給食은 政府나 學父兄이 좀더 負擔하더라도 그토록 重要한 우리의 어린 자식들을 위하여 맛있고 영양이 豊富한 點심을 먹여 튼튼하고 미끈한 아이들을 만들어야 한다.

體能檢査는 敎室과 圖書室과 공부방에만 처박아 두지 말고 우리의 靑少年이 平素에 體力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家庭의 父母가 지나친 過欲을 지니지 않도록 타이르는 敎育이 必要하다.

不正食品은 집에서 하루 이틀이면 傷하는 食品이 서울에서 山間僻地에까지 가서 팔리는 수수꺼꺼하며 時限이 지났으면 小賣店에서 返品을 받아가고 防腐劑를 쏟아 넣는 법이 없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들 모두가 學校와 政府와 業者를 탓하고 責任을 지우고 몰아세우지만 말고 스스로 자식을 기르고 깨우치고 타이르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지 反省하고 좋은 制度를 잘 살피는 方向으로 생각해야 한다.

學校·政府는 멋멋하게 當局의 잘못을 덮어놓고 學父兄·國民의 協調로 더욱 잘해 가겠다는 覺悟를 보이되 잘못된 給食 빵을 먹고 숨진 어린이 體能檢査場에서 슬어진 學生이 제자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業者는 新聞에 가득찬 解明이니 「사과 말씀」과 같은 여러말을 할 것이 아니라

「죽을죄를 졌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목숨을 걸고 다짐합니다」의 姿勢가 되어야 한다.

자랑하자 錦繡江山 보살피자 國立公園

나라사랑 國土保存 겨레사랑 自然保護